

시론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자

요즘 주한 미군병사의 범죄문제가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주한 미군병사들이 공무 이외에도 한국사회에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가 범법행위를 하거나 범죄행위 혹은 한국인에 대한 불법적 개행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률적 처리에 관한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사이의 국제협정으로 한미행정협정(1967)이 있다. 따라서 그에 따라 사안이 적절하게 처리되면 그만이라는 형식적인 논법도 있을 수 있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이제는 미국이 앞장서서 작금의 불평등조약을 해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어보면 가슴 아픈 오늘의 현실은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열등감에서도 기인했다는 점을 또한 솔직하게 인정하고 경이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민족임을 자랑하면서도 미국 내지 서구문화에 대한 맹목적 동경만을 해왔으며, 그러한 결과 서구의 퇴폐문화가 마치 이 나라의 새로운 대중문화인 것처럼 전도되어 있다. 자존과 주체성의 상실은 극적없는 대중문화의 양산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이 민족의 압박과 멸시를 감수하게 된 것이다. 누구라도 이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녕 문화민족의 전통과 가치를 대중의 삶 속에서 입대·발전시킬 때 세계 속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민족이 되리라 본다.

미군병사들이 주재국의 국법과 사회윤리를 무시하고 폭행·강간·절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약소국의 서러움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 이 나라에 입국하여 잘살아보겠다고 피땀 흘리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학대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인간이 지닌 이 중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차체에 우리들이 당하는 부당한 외침이 아니라 동남아에서 입국하여 3D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대우할 수 있는 기풍을 조성하고 국민성을 바꿀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세계는 개방되어 특정한 인종과 종교, 이념에 지배당하지 않는 시기가 되었다. 민족도 국가도 공생과 공존의 대전제 앞에 놓여 있다. 인간의 지역, 집단이 지니는 우위를 과시하고 있을 뿐이다. 가치의 고저와 힘의 우열을 논하기에 앞서 인간이란 서로 불가분의 관계 속에 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세계는 하나의 꽃

따라서 지배와 피지배의 논리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전체주의의 내지 패권주의의 사고에 다름 아니다. 온전한 지성 속에서 오직 형제애의 두터운 벽에 존재할 수 없다. 부처님 말씀처럼 세계는 하나의 꽃일 뿐이다. 역할에 따라 인연에 따라 각각 오늘을 향유할 뿐이다.

이제 우리는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나 국제관계의 개선이란 차원도 전제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민족적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면서 동등한 가치의 인간과 인간이라는 관계 속에서 한·미 행정협정의 개선은 촉구하고자 한다. 적어도 힘의 논리보다는 이성의 논리가 앞서는 양식있는 국가들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 유독 불평등조약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이 중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아니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약소국가라 하여 업수이 여기는 일이든지 국력을 앞세운 구시대적 식민주의의 내지 패권주의의 향수를 즐기는 것이라 항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의 오랜 우정과 친교를



한 상범 (동국대 법학과 교수)

한·미 행정 개선 마당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이 나라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자국민에 대한 법률적 문제는 그것이 누구에 의해 자행되던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문제는 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적법한 법적용과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미군의 주둔이 한국의 방위와 관계가 있고 안보에서 미국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협정 내용에 있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 혹은 필리핀과 같은 나라보다도 매우 불리한 점을 아직까지도 감수하고 있다. 특히 미군병사의 범죄에 대한 수사·소추와 재판, 처벌에 이르는 형사재판권의 행사에 있어 일방적으로 미국에 위임 내지 포기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그래서 그러한 미군병사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암적 요소로 묵여져서

지라하고 있다. 근자에 이룰수록 더욱 흉폭해지고 있으며, 빈발하고 있다. 연일 마스크에서 떠돌아다니다 보면 사형까지 처리한 사건이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자존을 지키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한·미 행정협정의 불평등조약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미국은 대륙으로서 여타 국가의 경우처럼 상호호혜평등한 조약을 체결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전세기의 패권주의는 사라진 지 오래다. 각 국가는 상호간에 최대한 존중하면서 인류의 공존공영을 위한 노력에 합의하였다. 이것이 UN의 정신이며, 이러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미국 또한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 유독 불평등조약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이 중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아니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약소국가라 하여 업수이 여기는 일이든지 국력을 앞세운 구시대적 식민주의의 내지 패권주의의 향수를 즐기는 것이라 항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의 오랜 우정과 친교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이제는 미국이 앞장서서 작금의 불평등조약을 해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어보면 가슴 아픈 오늘의 현실은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열등감에서도 기인했다는 점을 또한 솔직하게 인정하고 경이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민족임을 자랑하면서도 미국 내지 서구문화에 대한 맹목적 동경만을 해왔으며, 그러한 결과 서구의 퇴폐문화가 마치 이 나라의 새로운 대중문화인 것처럼 전도되어 있다. 자존과 주체성의 상실은 극적없는 대중문화의 양산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이 민족의 압박과 멸시를 감수하게 된 것이다. 누구라도 이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녕 문화민족의 전통과 가치를 대중의 삶 속에서 입대·발전시킬 때 세계 속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민족이 되리라 본다.

미군병사들이 주재국의 국법과 사회윤리를 무시하고 폭행·강간·절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약소국의 서러움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 이 나라에 입국하여 잘살아보겠다고 피땀 흘리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학대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인간이 지닌 이 중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차체에 우리들이 당하는 부당한 외침이 아니라 동남아에서 입국하여 3D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대우할 수 있는 기풍을 조성하고 국민성을 바꿀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세계는 개방되어 특정한 인종과 종교, 이념에 지배당하지 않는 시기가 되었다. 민족도 국가도 공생과 공존의 대전제 앞에 놓여 있다. 인간의 지역, 집단이 지니는 우위를 과시하고 있을 뿐이다. 가치의 고저와 힘의 우열을 논하기에 앞서 인간이란 서로 불가분의 관계 속에 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세계는 하나의 꽃

따라서 지배와 피지배의 논리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전체주의의 내지 패권주의의 사고에 다름 아니다. 온전한 지성 속에서 오직 형제애의 두터운 벽에 존재할 수 없다. 부처님 말씀처럼 세계는 하나의 꽃일 뿐이다. 역할에 따라 인연에 따라 각각 오늘을 향유할 뿐이다.

이제 우리는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나 국제관계의 개선이란 차원도 전제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민족적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면서 동등한 가치의 인간과 인간이라는 관계 속에서 한·미 행정협정의 개선은 촉구하고자 한다. 적어도 힘의 논리보다는 이성의 논리가 앞서는 양식있는 국가들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 유독 불평등조약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이 중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아니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약소국가라 하여 업수이 여기는 일이든지 국력을 앞세운 구시대적 식민주의의 내지 패권주의의 향수를 즐기는 것이라 항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의 오랜 우정과 친교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이제는 미국이 앞장서서 작금의 불평등조약을 해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어보면 가슴 아픈 오늘의 현실은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열등감에서도 기인했다는 점을 또한 솔직하게 인정하고 경이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민족임을 자랑하면서도 미국 내지 서구문화에 대한 맹목적 동경만을 해왔으며, 그러한 결과 서구의 퇴폐문화가 마치 이 나라의 새로운 대중문화인 것처럼 전도되어 있다. 자존과 주체성의 상실은 극적없는 대중문화의 양산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이 민족의 압박과 멸시를 감수하게 된 것이다. 누구라도 이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녕 문화민족의 전통과 가치를 대중의 삶 속에서 입대·발전시킬 때 세계 속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민족이 되리라 본다.

미군병사들이 주재국의 국법과 사회윤리를 무시하고 폭행·강간·절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약소국의 서러움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 이 나라에 입국하여 잘살아보겠다고 피땀 흘리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학대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인간이 지닌 이 중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차체에 우리들이 당하는 부당한 외침이 아니라 동남아에서 입국하여 3D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대우할 수 있는 기풍을 조성하고 국민성을 바꿀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세계는 개방되어 특정한 인종과 종교, 이념에 지배당하지 않는 시기가 되었다. 민족도 국가도 공생과 공존의 대전제 앞에 놓여 있다. 인간의 지역, 집단이 지니는 우위를 과시하고 있을 뿐이다. 가치의 고저와 힘의 우열을 논하기에 앞서 인간이란 서로 불가분의 관계 속에 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세계는 하나의 꽃

따라서 지배와 피지배의 논리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전체주의의 내지 패권주의의 사고에 다름 아니다. 온전한 지성 속에서 오직 형제애의 두터운 벽에 존재할 수 없다. 부처님 말씀처럼 세계는 하나의 꽃일 뿐이다. 역할에 따라 인연에 따라 각각 오늘을 향유할 뿐이다.

이제 우리는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나 국제관계의 개선이란 차원도 전제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민족적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면서 동등한 가치의 인간과 인간이라는 관계 속에서 한·미 행정협정의 개선은 촉구하고자 한다. 적어도 힘의 논리보다는 이성의 논리가 앞서는 양식있는 국가들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 유독 불평등조약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이 중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아니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약소국가라 하여 업수이 여기는 일이든지 국력을 앞세운 구시대적 식민주의의 내지 패권주의의 향수를 즐기는 것이라 항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의 오랜 우정과 친교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이제는 미국이 앞장서서 작금의 불평등조약을 해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어보면 가슴 아픈 오늘의 현실은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열등감에서도 기인했다는 점을 또한 솔직하게 인정하고 경이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민족임을 자랑하면서도 미국 내지 서구문화에 대한 맹목적 동경만을 해왔으며, 그러한 결과 서구의 퇴폐문화가 마치 이 나라의 새로운 대중문화인 것처럼 전도되어 있다. 자존과 주체성의 상실은 극적없는 대중문화의 양산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이 민족의 압박과 멸시를 감수하게 된 것이다. 누구라도 이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녕 문화민족의 전통과 가치를 대중의 삶 속에서 입대·발전시킬 때 세계 속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민족이 되리라 본다.

미군병사들이 주재국의 국법과 사회윤리를 무시하고 폭행·강간·절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약소국의 서러움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 이 나라에 입국하여 잘살아보겠다고 피땀 흘리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학대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인간이 지닌 이 중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차체에 우리들이 당하는 부당한 외침이 아니라 동남아에서 입국하여 3D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대우할 수 있는 기풍을 조성하고 국민성을 바꿀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세계는 개방되어 특정한 인종과 종교, 이념에 지배당하지 않는 시기가 되었다. 민족도 국가도 공생과 공존의 대전제 앞에 놓여 있다. 인간의 지역, 집단이 지니는 우위를 과시하고 있을 뿐이다. 가치의 고저와 힘의 우열을 논하기에 앞서 인간이란 서로 불가분의 관계 속에 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세계는 하나의 꽃

따라서 지배와 피지배의 논리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전체주의의 내지 패권주의의 사고에 다름 아니다. 온전한 지성 속에서 오직 형제애의 두터운 벽에 존재할 수 없다. 부처님 말씀처럼 세계는 하나의 꽃일 뿐이다. 역할에 따라 인연에 따라 각각 오늘을 향유할 뿐이다.

불교이념과 부합...실천에 역점

▲설소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총림학교관리위원장)=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동안 우리에게 교육은 너무 자식위주 입시위주였다.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특별·봉사활동을 통해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겠다는 교육개혁 조치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길 바란다. 불교 총림학교들도 이번 대교육개혁에 맞추어 부처님이 일찍이 펴보신 근거에 맞춘 다원화하면서도 개성을 살리는 전인교육을 펼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일연스님(광동학원 이사장)=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 가운데는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해 표준화를 해지, 학생 선발권, 등록금정책권을 준다든 내용이 눈길을 끈다. 수익용재산을 확보하고 재단전입금 규모에 따라 자립형 사립학교가 될 수 있다. 아예 계도 불교계는 자립형 사립학교가 없다. 건학이념을 살리기 위해 총림학교들도 자립형 사립학교가 되도록 방안을 모색해야겠다.

▲박선영교수(동국대, 교육학)=부처님 가르침의 방법론적 근원이라는 대가설이다. 또 교육의 목표는 자신에 대한 존재

국·공립대 본고사가 폐지되고 고교평준화가 사실상 해체 되는 등 새로운 교육지표가 나왔다. 지난날 31일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은 기계적인 교육제도를 인성·전인

교육의 차원에서 대폭 수정한 것으로 종교·대학의 기능 자체를 개선한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종교가 신교육체제에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계의 교육학적, 실천적, 종교학 교장,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 봤다.

문적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도덕입법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개혁안의 큰 취지인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는 불교의 교육이념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혁안이 아무리 이상적인 것이어도 한 학급에 50명이

활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어 왔었다. 총림학교로서 자비실천의 길을 가르치는 것은 전인교육과 다를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나사람'보다는 '된사람' 만들기에 더 큰 비중을 둘 생각이다. 특히 효행과 봉사, 개인의 취미살리기 등에 다각적인 프로그램의 개발도

활용하는 등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이번 개혁은 늦은 감이 있지만 자식위주의 전문인양성 교육제도에 인성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을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역채(부산 금정중 교장)=교육개혁이 자율과 개방에 뜻을 두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의 현실적 여건과는 동떨어진 내용이 많아 실질적 효과는 의문시된다. 특히 함양의 교사가 많은 수의 학생들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다 더 신뢰성 있는 교육여건 개선이 선행되었다면 이번 교육개혁은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주선영(학부모, 용신구 용신동)=고3 수험생 아들들 둔 부모의 입장에서 올바른 교육개혁의 추진을 기대한다. 우리의 아이들은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수학공식과 영어단어만을 외우는 공부하는 기계처럼 생활하고 있다. 이번 교육개혁을 계기로 불필요한 과목과 치맛바람이 근절되는 올바른 교육실현에 종교계도 관심을 기울여 종교활동을 통한 정서순화 등에 한 몫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종립학교 개성 살리는 교과목 개발해야 과열과외·치맛바람 잡기 다함께 동참을

나 되는 현실에서 그 이상을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 교육재원의 확보 우수교원의 유치는 여전히 쉽지 않을 과제로 남는다.

▲이근우교장(평택 청담중)=전인교육·인성교육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래지향적으로 마련된 것은 늦게나마 잘 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청담중고는 이미 학교의 특색과 생

계속에 왔었던 만큼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김중환(전국교협이사단 단장)= '열린 교육·광생학습사회의 교육복지국가 구현'을 목표로 한 이번 교육개혁은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불교의 인성교육 사상과 잘 조화될 것으로 본다. 종합생활기록부를 내신자료로

표명하고 나서는 한편, 덕신스님(조계종 문화국장)이 조백제 사장을 방문, 모든 문제를 대화로 원만히 해결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로 전환된 모습을 보이기도 시작했다. 이와는 달리 같은 날 김도연

27일 간부 7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28일 불교단체 공권력투입 반대 성명 29일 조계종 한동사장 방문 대화 중재 30일 경찰 영장제시 신병인도 요청 31일 경찰 '공권력 투입 않겠다' 밝혀 1일 조계종 노동장관 면담·총회 성명

하루 정부의 합법적 노동운동 단발 중재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조백제 한국통신사장 등 정부 당국자들의 농성자 해산 요청이 잇따르는 등 정부의 강경방침과 한동노조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사태초기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던 조계종이 29일 상모 총무회의를 거쳐 공권력 투입에 적극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27일 간부 7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28일 불교단체 공권력투입 반대 성명 29일 조계종 한동사장 방문 대화 중재 30일 경찰 영장제시 신병인도 요청 31일 경찰 '공권력 투입 않겠다' 밝혀 1일 조계종 노동장관 면담·총회 성명

하루 정부의 합법적 노동운동 단발 중재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조백제 한국통신사장 등 정부 당국자들의 농성자 해산 요청이 잇따르는 등 정부의 강경방침과 한동노조의 입장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다.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현재 총림학교 특징적 프로그램 명상의 시간과 수련회를 활성화해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게 하고 공동체식을 함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기세찬(장충중학교 교사)=교육개혁이 자율과 개방에 뜻을 두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의 현실적 여건과는 동떨어진 내용이 많아 실질적 효과는 의문시된다. 특히 함양의 교사가 많은 수의 학생들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다 더 신뢰성 있는 교육여건 개선이 선행되었다면 이번 교육개혁은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주선영(학부모, 용신구 용신동)=고3 수험생 아들들 둔 부모의 입장에서 올바른 교육개혁의 추진을 기대한다. 우리의 아이들은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수학공식과 영어단어만을 외우는 공부하는 기계처럼 생활하고 있다. 이번 교육개혁을 계기로 불필요한 과목과 치맛바람이 근절되는 올바른 교육실현에 종교계도 관심을 기울여 종교활동을 통한 정서순화 등에 한 몫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27일 간부 7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28일 불교단체 공권력투입 반대 성명 29일 조계종 한동사장 방문 대화 중재 30일 경찰 영장제시 신병인도 요청 31일 경찰 '공권력 투입 않겠다' 밝혀 1일 조계종 노동장관 면담·총회 성명

하루 정부의 합법적 노동운동 단발 중재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조백제 한국통신사장 등 정부 당국자들의 농성자 해산 요청이 잇따르는 등 정부의 강경방침과 한동노조의 입장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총무총장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정구속영장과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임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일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

경찰총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처방침